

# 標本論

학술위원 徐 錫 培  
(천우당 한약방)



**醫**藥의 연구는 人類의 生命과 健康을 유지하며 疾病을 퇴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이상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서 그 목적을 容易하게 遂行하느냐가 우리의 共同된 課題다

물론 어떠한 技術 또는 學問이고간에 그 目的達成의 遂行方法과 態度는 각자의 主觀과 見解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課程의 核心을 이루고 있는 뚜렷한 理論과 事實을 立證하는 데는 큰 차이점은 없으리라 믿는다.

韓醫學과 같이 대자연을 상대로 한 학문은 그 主幹을 이룬 理論을 糾明하지 않고서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倦怠와 老衰에 지쳐 버린다

그렇다면 韓醫學研究에 論理的으로나 事實을 立證하는데 主幹을 이루고 있는 가장 要約한 學說은 무엇이었던가? 再言할 必要도 없이 陰陽論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韓醫學研究에 있어 가장 先入觀이나 事實을 立證할 수 있는 大宗을 이룬 述語나 學說은 陰陽論이다. 그러나 筆者는 여기에 添言하여 標本原理를 提示하여 韓醫學研究에 主要課題로 삼고자 한다. 좀 광범위하게 論理를 전개하자면 標本原理란 비단 한의학 연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大自然이나 우리 人間事에 이르기까지 어느 部分이고 究明할 수 있으니 이것이 곧 모든 事物의 先天的인 本과 後天的인 標로 區分할 수 있다. 이로써 原因은 本이 되고 結果는 標가 되며, 선기는 本이 되고 후기는 標가 되며, 계획은 本이 되고, 실천은 標가 되며, 내부는 本이 되고, 외부는 標가 되며, 근경은 本이 되고, 지엽은 標가 되니 原因없는 結果가 있을 수 없으며 계획없는 실천이 있을 수 없으며 내부없는 외부가 있을 수 없으며 根莖없는 枝葉이 존재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모든 사물이 標本の 연관과 構造作用이 不可相離 밀접한 관계가 연속되는 事實과 標本の 構造와 作用이 標의 작용보다 本の 작용이 더 중요시되고 요망되는 「大本而小標」의 원칙을 해명하는 것이 먼저 순서라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標式에만 拘碍되기 쉽고 根本에 무관심하여 結果적으로 나타난 사건들에만

對策을 講究하고 根本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等閑하다 특히 醫療人의 實例지만 疾病의 根本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等閑하고 目前에 나타난 病狀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善策이 있을 수 없다. 既히 韓醫書에도 先賢들께서 標本論에 대한 문헌이나 이론을 제시하였지만 此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이를 細分하여 多方面으로 理論을 전개하여 우리 韓藥人의 생활에 應用하여 보았으면 한다

우리 인체를 醫學的인 논리로서 二大체계로 구분하여 보면 내부적인 組織과 외부적인 組織이라 할 수 있으니 이를 陰陽論으로 分離하자면 내부는 陰이 되고 외부는 陽이 되니 이를 標本論으로 해석하자면 내부는 本이 되고 외부는 標가 되니, 此에 隨伴하여 五臟은 本이 되고 六腑는 標가 되며, 臟腑는 本이 되고 筋肉은 標가 되며, 營血은 本이 되고 衛氣는 標가 된다.

臟腑를 本에 두고 此에 속한 經絡을 標에 두니 가령 手太陰肺는 本에 두고 그와 直結된 中부에서 小商까지는 標가 되며, 手陽明大腸은 本이 되고 그와 直結된 商陽에서 迎香까지는 標가 되니, 十二經絡의 標本分離法은 針灸書에 의해 같이 準 할 수 있다

督脈을 本에 두면 그 標는 諸陽經絡에서 찾고, 任脈을 本에 두면 그 標는 諸陰經絡에서 찾고, 胸腹腰脇을 本으로 定하면 그 標는 頭面이나 四肢에 있다

그 本을 脾胃에 두면 그 標는 四肢나 肌肉에 있다 心肺에 本을 두면 그 標는 頭面이나 手臂에 있다. 肝腎에 本을 두면 그 標는 前後陰窺나 足部に 있다

腎의 標는 腰尻에 있고, 肝의 標는 脇肋에 있고, 脾의 標는 腹部에 있고, 心의 標는 胸背에 있고, 肺의 標는 肩膊에 있다

肝氣가 通於目하고 肝與筋으로 相合되니 그 本이 肝에 있으면 그 標는 目과 筋에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肝에 異常이 있으면 標末인 目과 筋에 이상이 있다는 뜻이다.

五臟六腑의 標本을 이런 準例로서 究明하여보면 모든 病의 原因이나 先起는 本이 되고 結果나 後起는 標가 된다.

假令 脾胃虛弱으로 因하여 설사나 복통 등의 病상이 발생되었다면 脾胃의 虛弱이 病의 本이 되고, 설사나 복통이 病의 標가 된다 食滯로 인하여 설사나 복통이 발생되었다면, 食滯는 病의 本이 되고, 설사나 복통이 病의 標가 된다 이와 같은 예로써 病의 標本을 규정하였다면 재언할 필요도 없이 治本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前者의 例는 健胃之劑를, 後者의 例는 消通之劑를 投與하는 것이 目前의 效果를 본 것이니 이런 방법이 內經에 明示된 治病에 必求基本의 大法則인 것이다

## ▣ 학 술

우리 身體의 解剖學的인 組織이나 生理的作用으로 보아 病原이 거의 內部에서 發生되지만 仲景傷寒論의 六經現證이 이와 相反되는 外部에서 原因이 되어 內部로 傳移되는 例도 許多하다 그러나 外部와 上體라는 것은 標末의 大原則을 離脫할 수 없기에 비록 外部가 원인이 되어 發病되었다해도 一但 內部로 傳移하여 外部病邪가 已破되었다면 病的 標本을 재정립하는 것이 傷寒論에서 先務라 할 수 있다.

예로써 太陽症이 已破되고 病邪가 陽明府로 傳入되었다면 그 病原이 비록 太陽이었지만 그 本은 已破되었으니 그 本은 陽明府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太陽病邪가 아직 未破되고 陽明府나 小陽症이 併合될 경우 그 本이 太陽症이니, 少陽이나 陽明病보다 太陽病을 先治하는 것을 仲景傷寒論에서 강력히 주장하였다.

太陽症熱이 陽明府로 傳入되어 反惡熱하고 目痛, 鼻乾 不眠 腹滿 便閉 등의 증상이 발생되었다면 入府한 熱이 本이 되고 目病, 鼻乾 不眠 등이 병의 標가 된다 其熱이 三陰經으로 傳入되어 腹滿, 自利, 舌乾, 口燥, 煩滿 등이 발생하면 三陰經에 入府한 熱이 本이 되고 腹滿, 自利, 舌乾, 口燥 등이 標가 된다.

仲景傷寒論에 直中陰症이라 하여 발병초기부터 厥逆, 腹痛, 自利, 不渴 등의 병상이 발생되었다면 太陰이 受寒한 所致나 太陰의 寒이 病的 本이 되고, 腹痛, 自利 등이 病的 標가 되며, 此症에 嘔吐가 有하면 小陰이 受寒하였고, 又加하여 小便이 自利하면 厥陰이 受寒한 所致나 直中三陰症은 寒으로서 本을 定하고 그에 나타난 病狀들을 標로 定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病的 標란 그 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病的形狀을 의미한 것이니 標의 규정은 용이하지만 本을 究明하는데 難關이 있는 것이다

가령 腹痛 自利의 病狀이 발생되었다면 腹痛, 自利는 病的形狀이니 病的 標가 될 것이고 이런 形狀을 惹起시키는 熱이나 寒이 病的 本이 될 것이다 그렇다. 腹痛 自利는 目前에 나타난 形狀이니 標로 규정짓기 용이하다 그러나 그런 증상을 발생케 하는 原因(本)을 어떻게 하면 究明할 것인가, 이는 望問診의 手順이 필요하니 一例는 病原이 傳經熱이었고 證候가 惡熱하며 脈狀이 沈實有力할 것이니 病的 本이 熱에 있고 一例는 病原이 直中陰症이었고 證候가 惡寒하며 脈狀이 沈細無力할 것이니 病的 本이 寒에 있다 이와같이 病的 本이란 望, 問, 診, 法의 우리 慣行에서 病原과 證候, 脈狀을 參酌究明할 것이다 또 한 例로써 傳經熱邪가 極도로 沈入하여 陽極似陰의 變證이 생겨 身寒 四肢가 厥逆하는 症狀이 나타났고, 直中陰中에 寒邪가 極도로 심해 暎陰極似陽의 變證이 생겨 身溫 煩躁 引衣의 症狀이 나타나도, 前者는 病原이 傳經熱의 入臟之深이었고 證候가 反惡熱하며 脈狀이 沈實有力할 것이니 病的 本이 熱에 있고, 後者는 病原이 直中陰症이었고 證候가 反惡寒하며 脈狀이 沈

연코 沈細無力할 것이니 病의 本이 寒에 있다

이상과 같이 病의 本을 探索하는 데는 病原과 證候 脈狀을 參照하여야 하니, 여기 脇痛하면서 面靑, 目痛, 筋急, 易怒, 脈弦者는 病의 本이 肝의 風에 있고, 胸滿, 衄語, 面赤, 口乾, 脈洪은 病의 本이 心의 熱에 있고, 身重, 腹滿, 面黃, 嗜臥, 脈緩은 病의 本이 脾의 濕에 있고, 喘咳, 臂痛, 面白, 鼻乾, 脈溢은 病의 本이 肺의 燥에 있고, 氣逆世下 耳聾, 恐懼, 面黑, 脈細는 病의 本이 腎의 寒에 있다.

이상은 五臟에서 나타난 「病本探索法」의 一例이며 모든 疾病의 標本이 時間과 治療에 따라 다시 정립되는 예가 허다하다 例로써 傷寒에 裏熱이 極甚하여 便閉가 오고 便閉로 인하여 發黃, 發斑, 衄語 등의 變症이 올때 發黃 發斑 衄語 등의 根本原因은 熱에 있으나 原因이 結果되고 그 結果가 다시 原因이 되어 이런 症狀이 발생되었으니 發黃, 發斑, 衄語 등의 病本은 便閉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瘀血로 인하여 昏妄, 如狂, 胸腹小腹이 불쾌한 증상이 발생되었다면 물론 瘀血을 발생케 한 근본원인은 따로 있겠지만 그 원인을 現在로서 治療하기보다 昏忘, 如狂, 胸腹小腹의 불쾌를 치료하는 것이 目前의 효과를 볼 것이니 이 또한 원인이 결과되어 標本이 再定立되는 것이니 이런 類를 「病本規定法」이라 할 수 있다

傷寒과 雜病의 標本究明에 있어서 若干의 差異点이란 雜病은 傷寒과 같이 기본의 變遷이 頻煩하지 아니한 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雜病 역시 病의 形狀이 標가 되고 그 病狀을 惹起시키는 원인이 本이 되는 점은 조금도 차이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여기 頭眩, 頭痛, 眉稜骨痛의 患者가 있다고 假想하면, 頭眩, 頭痛, 眉稜骨痛은 분명 병적 형상이니 病의 標가 될 것이고 이런 病상을 惹起시키는 風이나, 熱, 濕, 痰 등이 病의 本이 될 것이다.

咳嗽, 喘促, 衄血, 鼻塞, 咽喉痛, 肩臂痛 등은 그 本(원인)을 肺에 두고, 健忘, 怔忡, 驚悸, 發狂, 疰痛, 胸背痛 등은 그 本을 心에 두고 吐瀉, 霍亂, 四肢不遂 水腫, 黃疸, 疝塊, 腹痛 등은 그 本을 脾에 두고, 筋攣, 癰腫, 頭眩, 筋疝, 轉筋, 脇痛 등은 그 本을 肝에 두고, 心懸如飢, 善恐, 骨癢, 耳聾, 寒疝, 遺精, 腰痛 등은 그 本이 腎에 있다

掉眩, 強直, 支病, 裏急, 筋縮, 卒倒 등은 그 本이 風에 있고, 痛痒, 瘡疥, 喘嘔, 大小便隆閉 吐衄血 衄狂 등은 그 本이 熱에 있고, 體重, 泄瀉, 浮腫, 腫脹, 項強, 關節痛 등은 그 本이 濕에 있고, 皮肉枯고 乾咳, 四肢弱 大便燥結 消渴 등은 그 本이 燥에 있고, 骨痺 囊縮, 권연, 腹痛, 泄瀉, 心痛徹背, 戰慄 등은 그 本이 寒에 있다.

一切의 飲食이나 消化機能에 關係된 病은 우선 그 本을 脾胃에서 찾고, 一切의 外感이나

## ▣ 학 술

呼吸機能에 관계된 病은 우선 그 本을 肺에서 찾고, 一切의 精神傷이나 血液循環에 관계된 病은 우선 그 本을 心에서 찾고, 一切의 性病이나 骨髓에 관계된 病은 우선 그 本을 腎에서 찾고, 一切의 過勞와 筋膜에 관계된 病은 우선 그 本을 肝에서 찾을 것이다

頭痛, 目眩, 耳聾, 面赤, 咳逆, 項強 등은 病的形狀이니 病的 標요, 病的 本을 把握하는데 問題는 있고 肩背痛, 手臂痛, 咽喉腫痛, 吐血, 衄血 등은 病的形狀이니 病的 標요, 病的 本을 把握하는데 問題가 있고, 泄痢, 腰痛, 淋濁, 脚氣, 脫肛, 便血 등은 病的症狀이니 病的 標요, 病的 本을 把握하는데 問題는 있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病本探索法」과 「病本規定法」 그리고 內經에 明示된 治病에 必求其本の 法則에 問題는 있는 것이다

先病而後逆者 治其本하고, 先逆而後病者 治其本하고, 先寒而後生病者 治其本하고, 先病而後生寒者 治其本하고, 先熱而後生病者 治其本하고, 先泄而後生他病者 治其本 하고, 先病而後泄者 治其本하고, 先中滿而後煩心者 治其本하라는 法則을 內經에서는 明示하였다 그러나 疾病의 緩急에 따라 治本治標의 先後가 바뀌는 예가 허다하다. 가령 어떤 原因으로 인하여 大小便이 隆閉不通하면 隆閉不通으로 인하여 生命은 危急하다 어떤 原因으로 인하여 瀉下를 不止하면 脫水 臟燥의 우려가 있기에 應急的인 療法으로서 前者는 急用瀉下之劑요, 後者는 急用止瀉之劑니, 病勢가 緩和되면 根本原因을 治療하는데 轉換하여야 할 것이니 이것이 急則治其標, 緩則治其本の 大法이다

吐血, 衄血, 下血이 大作하여 病勢가 危急하면 우선 治標로서 病勢를 緩和시키고 그런 연 후에 다시 治本으로 轉換하여야 할 것이며, 吐利가 大作하여 飲食吞下가 도저히 不能하면 우선 吐利를 鎮定시키고, 中滿喘急하여 其勢가 危急하면 우선 中滿을 治療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 예이지만 盲腸炎의 急性은 治標法인 洋方醫學의 手術이 善策이고 慢性은 韓方投藥이 善策이다 여기서 잠깐 附言하고 싶은 것은 韓方療法은 治本을 爲主하기 때문에 治療後 病的 再發이 드물고 洋方은 治標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治療後에 病的 再發이 많다

一切疾病의 急症은 治標를 先行하고 證勢가 緩和됨에 따라 治本으로 轉換하여야 할 것이다 一切疾病의 緩證은 治本에 注力하여야 할 것이니 이것이 內經에 明示된 急則治其標 緩則治其本 하라는 大法則이다 再言할 필요도 없겠지만 아무리 急症이라도 어떤 原因없는 病狀이 발생할 수 없으니 治本을 念頭두고 治標를 先行한다는 것은 生命이 危急할 때에 限하고 모든 疾病의 治療에 있어서 治標보다 治本에 注力하는 것이 우리 한방계의 慣行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病的標本과 先後治法을 究明하였다면 그 病에 대한 적중된 既成處方이나 새로

운 處方이 必要할 것이니 이것 또한 標本論理에 立脚하여 處方의 取捨選擇과 作成法 등을 研究하여 보는 것도 興味로울 것이다 다시말하면 그 疾病의 原因을 本이라 하였으니 그 本을 治療하고 除去할 藥品을 本(君)으로 定하고 그 病的形狀을 治療할 수 있는 藥品들을 標(佐使)로 定하여 大本而小標의 原則에 準하여 處方을 作成하였다면 그 病에 적중된 處方이라 할 수 있다 假令 心熱로 因하여 여러 形狀의 病이 發生하였다면 心熱을 除去할 수 있는 藥品을 本으로 사용하고 病狀들을 除去할 수 있는 藥品들을 標로 사용하여야 하며, 濕으로 因하여 여러 形狀의 病이 發生하였다면 除濕之劑를 爲本하고 病狀治療劑를 爲標하며, 熱甚으로 因하여 風證이 發生되었다면 退熱之劑를 爲本하고 除風之劑를 爲標하며, 瘀血로 因하여 여러 形狀의 病이 發生하였다면 逐血劑를 爲本하고 病狀治療劑를 爲標하며, 脾胃와 腎의 虛弱으로 因하여 여러 形狀의 病이 發生하였다면 전자는 健脾胃의 藥品으로 後者は 補腎之劑를 役與하여야 하니 예로서 脾胃虛弱으로 因하여 吐瀉, 腹痛, 氣力減退의 症狀이 發生되었다면 人參, 白朮, 甘草 등으로 爲本하고 茯苓, 澤瀉, 陳皮, 厚朴, 半夏 등으로 爲標하며, 腎處로 因하여 腰痛 脚膝痛 등의 病狀이 發生되었다면 補腎品인 熟地黃, 山藥, 山茱萸 등으로 爲本하고 杜仲, 破故紙, 牛膝, 木果 등을 爲標하니, 이런 標本論法으로 應用하여 더 많은 理論을 添加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痰으로 因하여 頭眩, 頭痛, 眉稜骨痛 등의 病狀이 發生되었다면 半夏, 南星으로 爲本하고 天麻, 防風, 羌活, 甘草 등으로 爲標하며, 因熱作渴에는 石膏, 知母로 爲本하고 天花粉, 麥門冬으로 爲標하며, 熱甚生風에는 梔子, 大黃으로 爲本하고 荊芥, 防風, 羌活, 甘草 등으로 爲標하며, 血虛發熱에는 四物湯을 爲本하고 柴胡 黃芩, 芍藥 등을 爲標하며, 氣虛多痰에는 人參, 白朮, 甘草를 爲本하고 陳皮, 半夏, 茯苓 등을 爲標하니 이는 標本을 兼治하는 處方의 예이다.

小青龍湯, 大青龍湯은 麻黃, 桂枝가 本이 되고 其他種이 標가 되며, 大柴胡湯, 小柴胡湯은 柴胡 黃芩이 本이 되고 其他種이 標가 되며, 半夏白朮天麻湯, 清暈化痰湯은 半夏 陳皮가 本이 되고 其他藥品이 標가 되니, 이런 類는 既成處方들의 構成目的이 主治者를 爲本하고 標本分治者를 標로 選擇하였음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대강의 標本論理로 處方構成法까지 應用하여 보았으니 기왕이면 針灸經絡에도 그 原理를 應用하면 興味로운 論理라고 본다. 針灸術에 이르기까지 標本原理를 羅列한다는 것은 너무 論理에만 치우친다고 反問할지 모르나 이는 標本論初에 記述한 바와 같이 手太陰肺는 本이 되고 그와 連結된 小商穴에서 中府穴까지 標가 된다는 論理를 설명하였기에 針灸편에서도 應用하여 보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針灸편에 標本原理란 要約하게 결

## □ 학 술

론 것자면 探穴의 取捨選擇과 投針의 先後施行에 있다

主治穴이 본이 되고, 先治穴이 본이 되니 가령 腑會, 中脘이라 하였으니 腑病에는 반드시 中脘을 主治穴로 選擇하고 臟會, 章門이라 하였으니 臟病에는 반드시 章門穴을 主治穴로 選擇하고, 筋會, 陽陵泉이라 하였으니 筋病에는 반드시 陽陵泉을 主治穴로 選擇할 것이다

上部病에는 手陽明經絡을 主治하고, 中部病에는 足太陰經絡을 主治하고, 下部病에는 足厥陰經絡을 主治하고, 前部病에는 足陽明經絡을 主治하고, 後部病에는 足太陽經絡을 主治하고, 督脈病에는 後谿穴을 主治하고, 任脈病에는 列缺穴을 主治하고, 陽竅病에는 伸脈穴을 主治하고, 陰竅病에는 照海穴을 主治하여 이에 主治란 그 疾病과 가장 관련깊은 穴을 施術하는데 注力하라는 意味이니 腑病인 泄瀉, 腹痛, 腹滿, 消化不良 등의 病에는 中脘穴을 先取하고 그와 관련된 足三里나 內庭, 公孫, 內關穴 등을 補助穴로 選擇하여야 할 것이다.

上部病인 頭眩, 頭痛, 肩膊痛, 口鼻病은 手陽明穴인 曲池, 合谷, 陽谿 등을 主治穴로 先取하고 그와 관련된 列缺이나 頭維, 通天, 勞宮穴 등을 補助穴로 選擇할 것이다

督脈病인 項強, 疝, 疝, 疝, 疝 등의 脊柱에 관계된 病은 後谿를 主治穴로 先取하고 그와 관련된 神門이나 合谷, 大椎, 身柱穴 등을 補助穴로 選擇할 것이니 이상은 그 疾患에 해당하는 探穴의 取捨選擇에서 主治穴로 忘却치 않아야 할 간단한 예이다

先治穴이 본이라 하였으니, 治風에는 百會 風府를 先針하고, 治瀉에는 三里 梁丘를 先針하고, 治勞에는 膏肓俞 氣海를 先針하고, 上氣에는 曲池를 先針하고, 痲痺에는 神門을 先針하고, 便秘에는 天樞를 先針하고, 頭部病에는 百會 風池을 先針하고, 胸背病에는 中府 肺俞를 先針하고, 腹脇病에는 中脘 章門을 先針하고, 腰尻 病에는 腎俞 環跳를 先針하고, 膝足病에는 三里 太衝을 先針하여야 하니, 여기서 先針이란 그 疾病과 가장 관련깊은 穴을 先取하라는 意味이니 가령 風의 疾患인 口眼歪斜의 病이 發生되었다면 治風에는 先針, 百會, 風府라 하였으니 먼저 百會를 施術하고 다음 地倉 頰車를 施行하여야 效果를 빨리 볼 것이며 이와 相反된 先取 地倉, 頰車하고 다음 百會를 取한다면 그에 대한 效果는 더딜 것이다

泄瀉에는 三里나 梁丘穴을 先取하고 公孫이나 內庭穴 등을 施行하여야 하며, 虛勞에는 膏肓俞를 先取하고 然後에 氣海나 足三里를 施行하여야 하니 이의 先後施行이 바뀌면 效果가 遲延될 뿐 만 아니라 副作用의 우려도 있으니 이는 先後針法의 一例이다.

上氣에는 曲池穴을 先取하고 (合穴은 逆氣를 瀉함으로) 頭維, 風池, 解谿穴 등을 施行하여야 하니 此의 先後施法이 바뀌면 上氣를 增加시킬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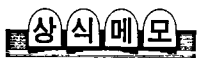
頭部病에는 證候에 따라 勿論 穴이 決定되겠지만 예로서 百會, 風池를 先取하고 手足穴인 合谷, 太衝, 伸脈穴 등을 施行하여야 하니 (上下施術에 先上後下라 하였으니) 此의 先後施

법이 바뀔지 없어야 한다

膝足病에는 症候에 따라 穴이 決定되겠지만 예로서 三里나 太衝穴을 先取하고 (多氣多血의 足陽明經絡을 先取하고 足部에서는 足厥陰經絡을 先取하라) 湧泉이나 絕骨, 公孫穴 등을 施行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예는 取穴選擇에 있어서도 先後施法이 相反되지 말자는 要略이다 經絡에서만 施行하는 針灸術을 가지고 標本論을 應用하는 것은 너무 論理的인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어떤 學問이고 간에 각자의 主觀과 응용도에 따라 그 深度나 變化는 無限한 것이니, 어떤 이는 五積散으로 또는 藿香正氣散으로 많은 病들을 치료하였다는 예들은 여기 標本原理를 究明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無言의 暗示를 주리라 믿는다

〈전남 곡성읍 읍내리 ☎ 63-2609〉



正常을 反하면 病이다

脈이 實하면 血이 實하고 脈이 虛하면 血이 虛한 것은 正常이나 이에 反하면 病이 된다

- 內經 -